



고창군 대한노인회, '고창노인청춘대학' 졸업식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부설 고창노인청춘대학이 28일 고창군지회 3층 대강당에서 노인대학 학생 및 내빈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2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노인강령낭독, 졸업장 및 유공자 표창장 수여에 이어 이공진 지회장과 유종일 노인대학장의 인사,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등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고창노인청춘대학은 지난 4월, 관내 어르신 120명이 입학하여 약 8개월간 노래교실, 실버체조 등 건강강좌,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어르신의 배움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큰 몫을 담당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건강한 모습으로 배움을 포기하지 않고 졸업의 영광을 누리게 된 모든 분들께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노인청춘대학에서 배움과 경험을 토대로 더 빛나고 행복한 인생설계를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희망2025나눔캠페인 추진 전략 논의

남원시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1월 26일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 센터 강당에서 읍면동 업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캠페인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캠페인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캠페인 기간 중 성공 점수처 운영 및 언론사를 통한 기부와 관련한 협조 사항을 안내하였다.

특히, 캠페인 기간 내 집중 모금에 따른 담당자 유의 사항을 공유하여 희망2025나눔캠페인 추진을 빈틈없이 하도록 당부하였다.

희망2025나눔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전복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2024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추진하며, 성금은 시청 주민복지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로 접수하면 되고,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사용될 예정이며, 시는 모든 시민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기업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하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반딧불신헌, 따뜻한 이불 전달 나눔활동 박차

무주반딧불신헌(이사장 지대선)은 28일 이불 20채를 (사)대한노인회무주군지회(지회장 이광부)에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행사는 무주반딧불신헌 임직원 및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임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무주반딧불신헌(이사장 지대선)의 나눔활동은 전국 신헌 및 임직원의 기부로 운영되는 신헌사회공헌재단에서 10월 14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는 "은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하여 9회째를 맞는 본 캠페인을 통해 전국 696개 신헌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 에 이불 등 난방용품과 생필품을 담은 어부바박스를 나누어 지역 내 나눔 온도를 높일 예정이다.

지대선 이사장은 "은세상 나눔캠페인은 서민과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신헌의 가치를 잘 나타낸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라며 "무주반딧불신헌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부 지회장은 "지원받은 이불을 관내 경로당 20곳을 선정하고 경로당에서 최고령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을 전달 할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남원시,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강화 분야서 기관 표창 · 특별교부세 2200만원 받아

남원시는 2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강화 분야에서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받게 됐다.

남원시는 초고령화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남원 복지안전 119' 앱 자체 개발과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감 강화 노력이 높이 평가 받았다.

원 복지안전 119앱은 △긴급구조 119 △도움 요청 △안전 신고 △안전 지도 △안전 수칙 등 5가지 주요 기능을 탑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은 전력 사용량과 조도 변화를 감지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안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돕는다.



하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복지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시 구직 단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제2회 총동창회 개최

지역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익산시의 특별한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는 28일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 제2회 총동창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20여 명의 수료생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들이 서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고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사업 후기 영상 시청으로 시작해, 우수 참여자에 대한 시상상 수여, 정현을 익산시장의 축하 인사, 청년응원문구를 담은 퍼포먼스와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함께 성장한 경험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다졌다.

시는 올해 국비 8억 4,430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2,23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실제 △도전(5주) 34명 △도전+ 중기(15주) 62명 △도전+ 장기(25주) 49명 등 총 14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참여자 중 23명은 취·창업, 49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10명은 직업훈련, 11명은 미래 내일 일 경험 프로그램에 연계되는 등 총 93명이 사회활동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시는 이 같은 사회활동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개인별 연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수료생은 "이 사업은 시작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며 "대학 졸업 후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웠던 시기에 자신감을 잃었지만, 청년 도전 지원사업 덕분에 자신감과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읍시, 어린이축구장 벽화 · 맨발산책길로 정읍천 새롭게 탈바꿈

정읍시가 정읍천 어린이축구장 관공석을 새롭게 단장하고 맨발산책길을 조성하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하천으로 거듭났다.

시는 초산교 인근 어린이축구장의 노후된 관공석을 새롭게 단장하고 'enjoy soccer 어린이'라는 디자인을 적용해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약 870㎡ 규모의 관공석 벽면과 바다면역에 우레탄 도색 작업을 진행했으며, 어린이축구장에 어울리는 생동감 있는 축구 캐릭터를 그려 넣어 운동과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휴식을 위해 연지동 주민센터 인근에 폭 1.5m, 둘레 약 370m의 맨발산책길을 조성했다. 자연 친화적인 마사토로 포장된 산책길은 맨발로 걸으며 발바닥으로 흙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꽃밭(골드메리)도 함께 조성해 시민들이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화수 시장은 "어린이축구장 관공석 벽화를 통해 어린이



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됐으며, 맨발산책길 조성으로 하천이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상동 LG아파트 앞 원룸 지역 소방도로 신설

정읍시가 원룸 밀집 지역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도로를 개설하며 주민 생활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다.

시는 상동 LG아파트 앞 원룸 밀집 지역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길이 100m, 폭 8m 규모의 소방도로를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골목길이 협소하고, 수목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 소방차와 긴급 차량의 빠른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소한 골목길과 악취 문제로 불편함을 겪던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방도로 개설이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의 빠른 진입을 보장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선관위, '공명이사랑나눔회' 사랑의 연탄기부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공명이사랑나눔회'는 28일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일대의 에너지 취약 가정에 연탄 1,760여 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명이사랑나눔회'는 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2007년 결성된 이래, 매달 모든 직원들의 성금으로 자매결연 복지시설 후원, 불우이웃 성금전달, 농가 수해복구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특히 '사랑의 연탄 기부' 활동은 2013년부터 해마다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에너지 취약가정에 연탄을 배달함으로써 봉사의 보람과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는 "매년 잊지 않고 연탄 나눔 봉사에 동참해준 공명이사랑나눔회에 감사드리며, '강추위가 예상되는 이번 겨울,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은, 진안군에 '딸에게 보내는 선물' 100상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8일 진안군을 방문해 '딸에게 보내는 선물' 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공명수 진안지점장 등이 참석해 저소득 여성 청소년을 위한 선물꾸러미(보건위생용품) 100상자(3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이번 나눔행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이날 전달된 물품들을 대상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은행은 이번 기탁을 포함해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며 지역 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은, 무주군에 보건위생용품 100박스 기탁

(주)전북은행(대표 백종일이)은 지난 28일 무주군에 지역 내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1백 박스(3백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물품 전달을 위해 무주군청을 방문한 전상익 부행장과 김성수 무주지점장은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항상 지역 사회 발전에 이웃들의 행복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물품이 지역 내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돼서 도움이 되고 또 더 많은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마무리

남원시는 시 가족센터(센터장 나찬도)가 지난 11월 28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 개강해(주/6회, 2시간) 진행된 교육 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중도 입국자 80명으로, 주?야간 및 주말에 실생활에 유용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여 의사소통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

베트남 출신 정\*\*\*님은 "한국어 수업을 통해 혼자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됐고,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문화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와 중도 입국 자녀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두상달 가정문화원 이사장, 김제시에 고향사랑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사)가정문화원 두상달 이사장이 28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제 광활면 출신인 두상달 이사장은 무연회사인 칠성산업을 창업한 기업인으로 아내와 함께 기업이나 연수원 등에서 부부 감사로도 활약한 바 있으며 평소 꾸준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이날 제69회 김제지평선아카데미 강사로 초빙돼 '행복한 가정이 경쟁력입니다'라는 주제로 김제시민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두 이사장은 "내 고향 김제시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기부금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곳에 쓰였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김제시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에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고향 사랑기부금을 해주신 두상달 이사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두태 기자